

강화연습

수능 비문학 강화를 위한 연습 (01회차)

차례

아도르노 미학 – 학습자료	3
본문 (가)	3
[표 A] 대중 예술 vs 전위 예술 (아도르노의 관점)	3
[표 B] 동일성 vs 비동일성	4
[표 C]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 vs 진정한 예술	4
본문 (나)	4
[표 D]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본 세잔 vs 미메시스로 본 세잔	5
[표 E] 아도르노 미학의 긍정적 측면 vs 한계	5
[표 F] 아도르노 vs 베냐민의 예술관 비교	5
[표 G] (가)와 (나)의 서술 방식 비교	5
학습 가이드	6
핵심 개념 확인	6
주목해야 할 대립 구조	6

아도르노 미학 - 학습자료

본문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표 A] 대중 예술 vs 전위 예술 (아도르노의 관점)

구분	대중 예술	전위 예술
생산 방식		
사회적 기능		
감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예술의 형태		

[표 B] 동일성 vs 비동일성

구분	동일성	비동일성
개념 정의		
예술에서의 표현 방식		
자본주의 사회와의 관계		
아도르노의 평가		

[표 C]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 vs 진정한 예술

구분	대중 예술	진정한 예술
목적		
형식		
감상자 체험		
사회 부조리와의 관계		
개인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본문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 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 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표 D]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본 세잔 vs 미메시스로 본 세잔

구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기	미메시스로 읽기
작품의 성격		
표현하는 것		
예술가의 역할		
감상자의 체험		

[표 E] 아도르노 미학의 긍정적 측면 vs 한계

구분	긍정적 측면	한계
예술의 자율성		
사회와의 관계		
예술의 범위		
미메시스와의 관계		
동일화 문제		

[표 F] 아도르노 vs 베냐민의 예술관 비교

구분	아도르노	베냐민
진정한 예술의 조건		
대중 예술에 대한 입장		
예술 가치의 발견 가능성		
예술의 범위		

[표 G] (가)와 (나)의 서술 방식 비교

구분	(가)	(나)
주된 서술 방식		
아도르노 미학에 대한 태도		
핵심 개념		
예시로 든 예술 작품/예술가		

학습 가이드

핵심 개념 확인

개념	뜻풀이 (직접 써보기)
동일성	
비동일성	
문화 산업	
전위 예술	
미메시스	
아름다운 가상	

주목해야 할 대립 구조

- **(가)의 핵심 대립:** 대중 예술(동일성) vs 전위 예술(비동일성)
- **(나)의 핵심 대립:** 아도르노의 미학(긍정) vs 아도르노 미학의 한계(비판)
- **(가)와 (나)를 관통하는 대립:** 형식의 비정형성 체험 vs 주관의 재현(미메시스)
- **역설적 대립:** 동일화를 비판하는 아도르노가 전위 예술로 예술을 동일화함(☹)